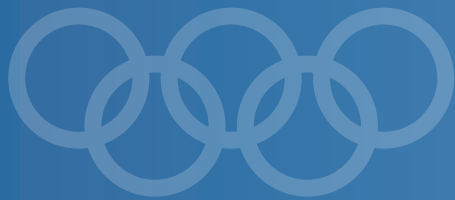


2018 평창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KBS  **춘천**

김영준 기자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특집뉴스 스튜디오 On Air 직전 모습.

2011년 7월6일 대한민국, 특히 강원도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자크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며, ‘평창’이라고 외쳤다. 현장에는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와 조양호 평창유치위원장 등 많은 인사가 있었고, 평창이라는 이름이 호명되면서 서로를 얼싸안으면서 감격했다. 3번째 도전 끝에 일궈낸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이었다. 개최 확정부터 대회까지 환호와 들뜬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가 행사인 동계올림픽 대회 확정으로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정선에는 고속도로가 정비되고, 강원도가 그토록 고대하던 KTX 열차가 놓였다. 교통 오지 강원도 입장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의 수혜였

다. 도시 출입구 곳곳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조형물과 표식들이 생겨났다. 특히 평창과 강릉, 정선에는 경기장과 대회시설 공사가 시작됐고, 많은 관광객을 맞이 위해 호텔과 펜션 등 숙소가 들어섰다.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집됐고, 추운 겨울 날씨를 버틸 수 있도록 방한용품이 마련됐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감동까지 일궈냈다.

그렇게 2018년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17일 동안의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됐다. 세계 92개 나라에서 2,920명이 참가해서 15개 종목에서 102개 경기를 치렀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따내며 종합 7위를 차지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과 북의 선수가 손을 맞잡고 있다.



7년 만에 찾은 평창올림픽시장은 썰렁하기만 했다.(2025년 6월)

7년 뒤 2025년 대한민국 평창은 어떨까?

7년 뒤, 2025년 5월 강원도 평창을 취재하게 됐다. 다시 강원도 평창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취재의 목적은 인구 감소 위기였다. 7년 만에 찾은 평창의 외면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와 비슷했지만, 인구는 크게 줄었다.

평창올림픽 당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평창올림픽시장은 오가는 사람들이 적었다. 한창 바쁠 점심때이지만 손님들이 너무 적었다. 먹거리 장터 성격인 아케이드형 시장 안에서 메밀전과 전병을 부치고 있는 고령의 상인들만 남아 있었다.

한 상인에게 물었다.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만드시면 다 팔리나요?”

“여기에 주말에만 사람들이 좀 나오지 평일에는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건 택배로 주문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

또 물었다.

“평창올림픽 할 때는 사람들 많았지요?”

“그때는 전국에서 찾아와서 대단했지요. 여기서 경기장은 한 50분 가야 하는데도 밀물처럼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랬으니까요.”

밀물처럼 왔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평창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에 발



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의 군청(좌)과 올림픽종각(우) 모습.



산한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현재 강원도 평창군의 인구는 4만 30여 명이다. 4만 명 붕괴를 앞둔 절박한 상황이다. 평창군은 공무원 1명당 1명의 전입자를 확보하려는 목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인구 3만 명대로의 추락만은 막아보자는 절박 심정에서 나온 대책이다. 전입 지원금도 강원도 최고인 30만 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평창군의 연도별 인구수를 분석해 보니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던 2018년을 전후해서 인구 감소 폭이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외였다. 'Big Event'를 전

후로 평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인구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예상외였기 때문이다. KTX 등 교통망 개선과 도시 환경 개선, 도시 이미지 개선 등만으로는 출생률 감소와 외지 이탈의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이 읽혔다. 그렇게 평창은 잊히는 농촌마을이 돼 가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서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변 도시지역인 원주와 충북 등으로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평창에는 의료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생겨난 KTX는 주민들에게는 친근한 '발'이 되지 못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도 있었다. ‘살기 좋은’ 평창을 알리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 이후 올림픽 레거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것을 지속화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올림픽 개최지의 영향력을 계속 발산하는 것이다. 국내와 해외 청소년들을 초청해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IOC가 주관하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열렸다.

또 대표적인 기관이 평창유산재단과 218평창기념재단이다. 하나같이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계스포츠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기관이다. 동계스포츠 종목이라는 여전히 낮은 인지도와 인기, 추위라는 제약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평창 레거시를 일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평창군청에는 ‘올림픽체육과’가 있다. 대한민국 다른 자치단체 행정기관 중에는 어디에도 없는 부서이다. 기존 체육과의 업무에 올림픽 스포츠 관련 업무를 더했다.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대회 유치와 체육을 통한 올림픽 유산 남기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평창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부서이다.

이처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고, 동계스포츠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또 전지 훈련단을 평창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역사와 가치를 이어가는 활동들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남는다.

평창올림픽 개최 도시가 발산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것뿐인지 고민하다가 좀 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졌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동계올림픽 유산의 중요한 축인 동계올림픽 기반 시설 활용이 너무도 아쉽다는 점이다. 평창올림픽이 남긴 가시적이며 상징적인 시설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운영을 위해 사용되던 건물들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활용법을 찾지 못한 지가 벌써 7년이 넘는다. 대회 당시 올림픽 종료 이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목표는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전시장과 박물관, 주민 시설 등등. 하지만 실제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시설을 개조하는 비용과 운영비, 관리의 주체, 지속적인 활용 여부 등에 대한 고민 속에 잠시 멈췄던 손이 이제는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제방송센터(IBC)

멈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단적인 예가 바로 2018평창올림픽 당시, 전세계 방송사들이 올림픽 소식을 전했던 IBC국제방송센터 건물이다. 국내외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소식을 전하던 곳이다. 나도 그 안에서 일했다. 전체면적이 50,000㎡가 넘고, 사업비는 900억 원 넘게 들었다. 하지만 사용된 것은 대회 기간뿐이다. 이 시설은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보존관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설계작도 공모해 당선작 선정도 마쳤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98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 방치되면서 노후해 이제는 시설 보강 예산도 추가로 들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다. 국가문헌보존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2029년으로 늦춰졌다.

평창올림픽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더디다. 이제야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전시장을 갖추고, 실외에는 자원봉사자의 거리를 조성해 올림픽 개최 당시의 열기를 전하는 관광 홍보시설이다.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한다. 이 시설의 착공은 2023년에 시작됐다. 올림픽

이 끝나고도 5년이 지난 시점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아쉬움, 잊히는 올림픽, 아쉽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동계 올림픽 개최 지역 평창 인구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느껴지는 이유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영하 18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이 계속됐다. 대관령 칼바람이 더해지면서 무서울 정도로 가혹했던 한파에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도 했다. 나 역시 당시 올림픽 설상 종목 경기장에 있었기에 ‘그 추위’의 고통을 공감한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취재진들에게도 혹한은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장벽이었다. 몇 시간이고 밖에 있어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탈 인원은 소수였다. 자원봉사자 대부분과 대회 운영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밝은 미소로 선수와 관광객을 맞이했다. 그랬기에 혹한 속에서도 평창올림픽은 성공리에 진행됐다.

그런데 지금은 혹한의 정도가 더 심하다. 목표가 있었기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목표를 잡기가 쉽지 않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의 활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없다. 최근 평창에서 치러진 스포츠 대회에서도 대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단기 계약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고령의 마을주

민들이 서둘러 경기장을 오가는 풍경과 마주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취재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 우선 평창 올림픽 시설 활용에 먼저 나서야 한다. 더 욱더 근본적인 활용법을 만들고, 재정적 손해를 줄여나가며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 덩그러니 남아 있는 시설이 아니라 제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수천억 원씩 들여 시설을 만든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단순한 시설 활용이 아닌 올림픽 시설 속에 산업을 접목해 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평창 시티투어버스가 텅 비고 남아 가는 건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재활용되고 있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다닌다면 관광객들도 만족감이 클 것이 분명하다. 높이 125미터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올려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스키점프대에서 활강하는 모습을 본다면 더 재미있는 관광지가,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민국 산림 수도인 평창 대관령과 청옥산, 풍력발전소, 평창올림픽 시장, 바위공원, 평창강, 육백마지기 등의 생태를 알려 나간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다고 느껴



평창군청과 KBS 취재진 촬영 모습.

졌다. 특히 KTX 진부역과 평창역 운영을 계기로 올해부터 특화된 평창시티투어 관광 상품에 멋진 위용을 자랑하는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을 포함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7년 만에 다시 평창군을 주요 출입처로 담당하면서 다시 바빠졌다. 2018년 평창올림픽 경기 당시만큼 바빠지고 싶다는 열정이 생긴다. 굼직굼직한 취재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평창의 인구 감소와 부족한 의료와 교통 환경, 평창시티투어 관광, KTX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동계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 등등 무궁무진하다. 지역 방송사 언론인이 가지는 관심과 대안 모색을 통해서 평창이라는 작은 도시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더

활기차고, 역사와 전통이 풍부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그렇기에 더 힘차게 오늘도 노트북과 취재 수첩, 방송 카메라를 들고 평창으로 향한다. 다시 ‘평창’을 외친다. 그 ‘평창’의 울림이 ‘평창’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농촌지역의 거대한 함성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본다. 🍀

KBS춘천 김영준 기자